

2022년 10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 가정예배순서 ♥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98편 4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 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 찬 송 / 144(통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 성경봉독 / 욥기 9장 25~35절 (구약p.769)

25.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26.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27.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 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28.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29.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30.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31.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웃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32.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33. 우리 사이에 손을 엮을 판결자도 없구나
34.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35.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 ◎ 말씀선포 /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불완전하며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결국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일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결국 하

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자신의 분명한 한계를 인식할 때 전능자를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물론 욕은 매일 삶 속에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았지만 지금 재앙을 만나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욕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며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욕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1.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본문 27~28절입니다.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욕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신다고 여겨 탄식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러한 인생의 한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런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빨리 달리는 경주자, 먹이를 향해 날아 내리는 독수리에 비유했습니다. 본문 25~26절입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욕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죄로 오염된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그에게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영적 무지로 인하여 자신들의 무능한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죄 받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욕이 고백한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죄 받아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오직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나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2. 스스로 성결해질 수 없는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본문 29~31절입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고 말씀합니다. 욕은 자신이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뜨리실 것이니 자신의 이웃이라도 자신을 싫어할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는 자신이 스스로 성결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정죄를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을 정죄하실 때 누구도 중재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욕의 진술은 죄인이 하나님의 정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망의 형벌에서 인생이 스스로를 구원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의 절망적 상태를 보여 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니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성결해 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며 자비하고 긍휼의 아버지이시기에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온전하게 하시며, 문제를 해결하사 더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역사하십니다. 한번 택한 자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욱 아버지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3.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해야 할 인생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 본문 32~3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고 했습니다. 욥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막대기를 거두시고, 그의 위엄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는 오직 자신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간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 줍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면책 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그는 결코 정죄 받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들을 돌아보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32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참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시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 나의 약함과 무지를 알고 오직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 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나의 믿음과 가정,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 ◎ 찬 송 / 191(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 폐 회 / 주기도문